

이것이 적극행정,  
달라진 대한민국입니다

2026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봄호(제 43호)

# e-날씨이야기 (you)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반영하여  
'e(인터넷을 이용한) 당신을(you) 위한 날씨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6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봄호(제 43호)

# 목차



## 기상청장 기고

- 05 / 봄바람과 기후위기
- 07 / 꽃가루 정보 활용, 봄철 건강관리의 첫걸음
- 09 / 작은 불씨를 대형산불로 키우는 봄바람
- 11 / 촉우기에 담긴 데이터의 가치와 관측 정신
- 13 / 과거의 기록에서 내일의 안전을 읽다



## 대전지방기상청 소식

- 15 / 3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23 / 4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33 / 5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41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 43 / 2026년도 식물계절관측(봄꽃) 현황



© Pixabay



## 서비스

33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34 /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행일자 2026년 5월 29일

발행처 대전지방기상청

편집장 박경희 대전지방기상청장

편집/교열 백은희(기획운영과), 김효원(기획운영과), 남미선(예보과), 김연직(관측과), 김지현(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디자인 김기창(기후서비스과), 김연직(관측과), 김정수(기후서비스과), 김효원(기획운영과), 남민우(관측과)

박동영(관측과), 박선영(기후서비스과), 박성진(관측과), 박진영(예보과), 심준수(관측과)

윤자인(기후서비스과), 이정섭(관측과), 임나영(예보과), 임유진(기후서비스과), 정민음(관측과)

최경연(예보과), 추영옥(예보과)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발행한 'e-날씨유,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을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건조한 대기 상태,  
산불과 가뭄 발생 위험  
커져

봄을 주제로 하는 노래 가사에 자주 등장하는 봄바람은,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자연의 신호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차가웠던 공기가 누그러지고, 얼어 있던 땅은 서서히 녹으며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준비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마주하는 봄바람에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듯하다. 따뜻함 속에는 불확실성이 스며 있고, 그 변화는 점점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기상청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113년(1912~2024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년)의 봄철 평균기온은 13.6°C로 113년 평균 11.7°C 보다 1.9°C 상승하였다. 여름이 1.5°C, 가을과 겨울이 1.2°C 상승한 것에 비하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또한, 과거 30년(1912~1940년)과 최근 30년(1995~2024년)의 봄의 시작일을 비교해 보면, 최근 30년이 과거보다 18일 앞당겨졌다. 이러한 변화로 봄꽃의 개화 시기는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 시기에는 건조한 대기 상태가 이어져 산불과 가뭄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등 봄철 기후변화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이례적으로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했으며, 4월에는 기상가뭄으로 인해 강원 영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모습들은 이는 자연재해의 범주를 넘어 농업, 산업, 보건 등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농작물의 생육 환경을 변화시키고 생태계의 균형을 흔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자연은 물론이고 인간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는 현시대가 마주한 중대한 과제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인간의 활동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산업화 이후 대량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는 대기 조성과 지구 에너지 균형을 변화시켰고, 그 결과 현재 우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위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기후시스템은 복합적으로 작동하지만, 변화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으며,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 또한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지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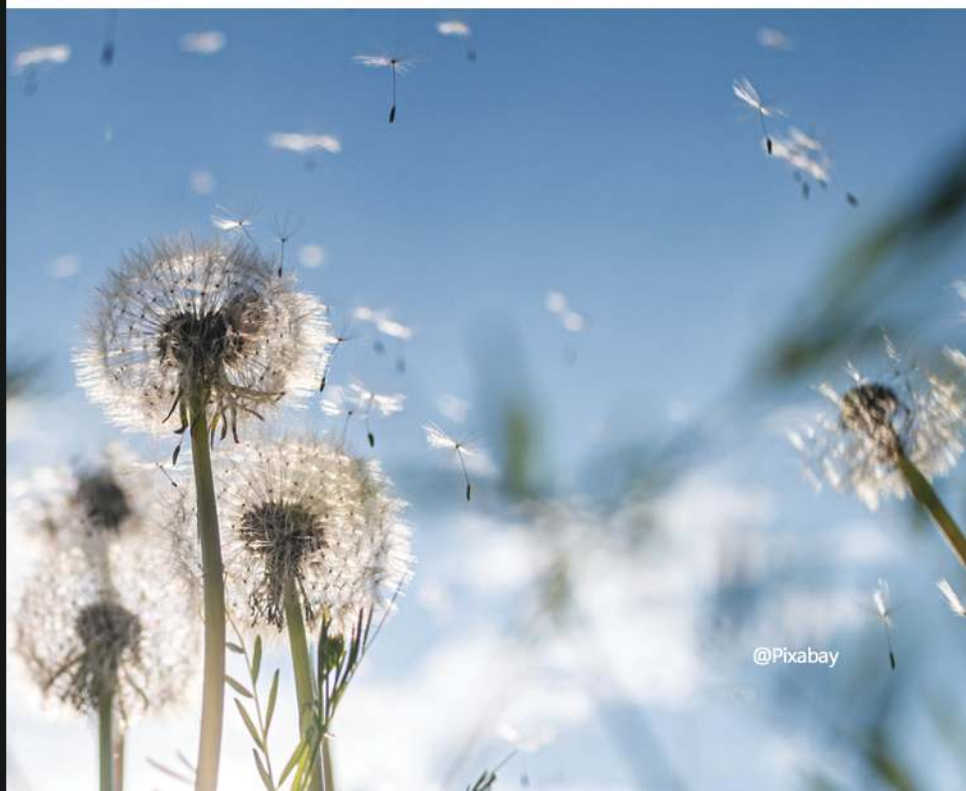
이제 우리는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탄소중립 이행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인 역시 일상 속 실천을 통해 탄소 배출 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사회 전반의 노력이 모일 때, 비로소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상청은 정확도 높은 기상관측과 기상기후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여건을 반영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 개인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봄바람은 해마다 불어오지만  
그 의미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 세대의 노랫말에도 봄바람이 아름다운 의미로 쓰일 수 있으려면, 지금 이 순간의 책임 있는 선택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년 우리 곁을 스치는 봄바람이 불확실한 불청객이 아닌 봄소식을 전해 주는 반가운 손님이 되기를 바라며, 기상청은 신뢰도 높은 기상기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온화한 날씨와 아름다운  
풍경 뒤, 반갑지 않은 손님  
그것은 바로 꽃가루...

봄은 긴 겨울을 지나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다. 얼어있던 대지가 풀리고, 나뭇가지 끝마다 연둣빛 기운이 번지기 시작한다. 거리에는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가 피어나고 공원과 하천변은 화사한 색으로 물든다. 따뜻해진 공기에 사람들의 발걸음도 자연스레 밖으로 향한다. 그러나 온화한 날씨와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함께 따라온다. 그것은 바로 꽃가루이다.

꽃가루는 식물의 번식을 도와 생태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알레르기 비염을 비롯하여 결막염, 천식 등의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꽃가루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2021년 491만여 명에서 2023년 743만여 명으로 2년 만에 50%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 평균기온 상승과 계절 변화의 영향으로,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점차 빨라지고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국립수목원 자료에 의하면 2010년대 초반 침엽수 4종(소나무·구상나무·잣나무·주목)은 보통 5월 중순에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했는데, 2024년에는 평균적으로 4월 26일에 날리기 시작하여 과거보다 보름 이상 빨라졌다. 이는 기후변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꽃가루는 수목류, 잡초류, 잔디류로 구분되며, 수목류는 3~5월, 잔디류는 6~8월, 잡초류는 8~10월에 주로 발생한다. 꽃가루의 움직임은 날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수목과 잡초류의 꽃가루는 바람을 통해 이동하므로 바람 부는 날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꽃가루는 강한 바람보다는 초속 약 2m 내외의 약한 바람이 불 때 공중으로 높이 떠올라 더 멀리 퍼지며, 습도가 높거나 비가 내리면 대기 중의 꽃가루 농도는 일시적으로 낮아진다.

이처럼 꽃가루는 날씨와 연관되어 있기에, 기상청은 기온·습도·풍속 등 관측자료를 종합해 알레르기 증상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 '꽃가루농도위험지수'를 기상청 날씨누리(특보·예보)공항·산악·생활)에 제공하고 있다.

이 지수는 꽃가루가 집중적으로 날리는 봄철과 가을철을 중심으로 매일 6시, 18시 두 차례, 지역별로 '낮음·보통·높음·매우높음'의 4단계로 발표된다. 오늘부터 모레까지의 정보가 제공되어 야외활동 계획이나 건강관리에 참고할 수 있으며, 단계별 행동 요령도 함께 안내되어 생활 속 꽃가루 질환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상청은 장기간 축적된 관측자료를 토대로 서울, 강릉, 대전 등 주요 도시 8곳의 13개 수중에 대한 '꽃가루 달력'을 국립기상과학원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다.

달력에는 수목류·잡초류·잔디류 등 식물 종류별로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기가 월별로 정리되어 지역별 특성과 계절별 발생 경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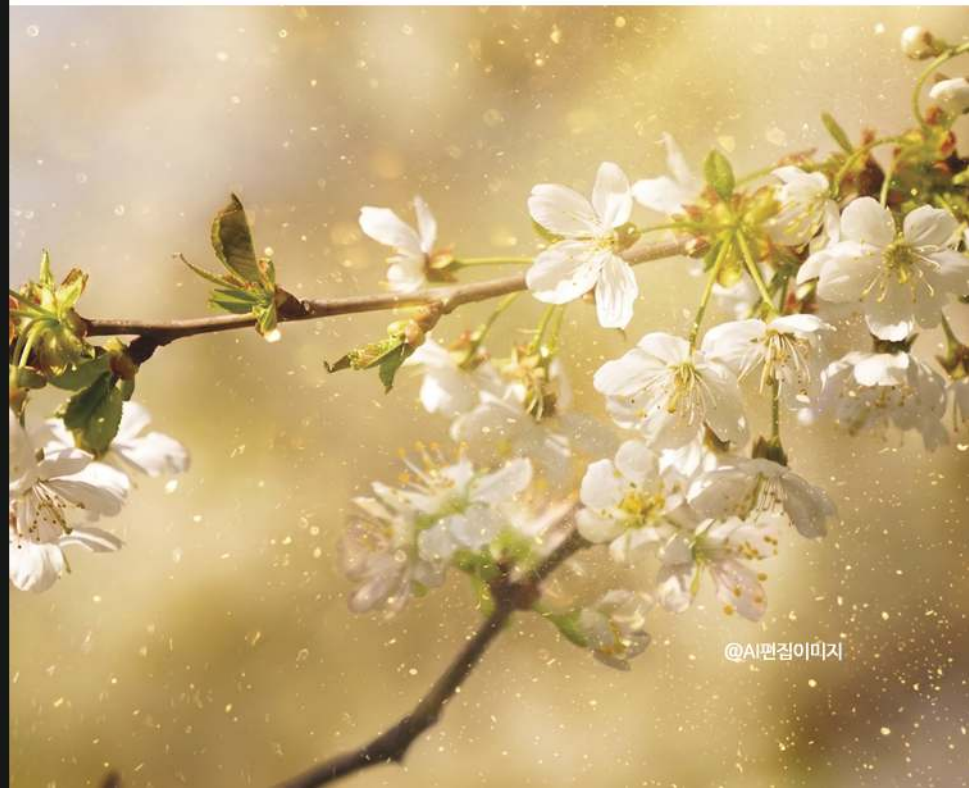
기상청이 제공하는 꽃가루 정보들을 활용하여,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에는 실내 환기 시간을 조절하고, 외출 시엔 마스크나 안경을 착용하면 꽃가루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귀가 후엔 옷에 묻은 꽃가루를 털어내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꽃가루 관측자료는 생활 건강 정보인 동시에, 장기적인 기후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꽃가루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길어지는 최근의 양상은 우리가 기후변화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봄은 설렘과 희망을 안겨주는 계절이지만, 봄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꽃가루 정보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보이자 과학적 관측의 결과물로, 이를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건강한 봄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기상청은 과학적 관측과 분석을 통해 생활 속 유용한 꽃가루 정보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기후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 작은 불씨를 대형산불로 키우는 봄바람

겨울철 강수량 부족은  
숲을 건조한 상태로  
만든다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력의 계절 봄이 찾아왔다. 하지만 우리에게 봄은 마냥 따스하고 여유로운 계절만은 아니다. 매년 반복되는 산불의 공포 속에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이다.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발표한 충남권 겨울철 기후특성에 따르면, 충남권의 강수량은 47.0mm로 작년(46.1mm)에 이어 평년(87.5mm)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강수일수도 17.3일로 평년보다 6.5일이나 감소했다. 겨울철 강수량 부족은 숲을 건조한 상태로 만들며, 토양이 머금은 수분을 줄어둘게 한다. 이러한 상황은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을 만들었고, 실제로 연초부터 충남권 전역에는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최근 10년간의 산불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국적으로 봄철에 발생한 산불이 288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월별로는 2월에 78건(268ha)이었던 산불은 3월에 들어서며 128건(1만2762ha)으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고, 4월에도 116건(1122ha)이 발생했다. 이러한 통계는 산불이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로, 우리는 봄철 내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산불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봄철 산불에는 건조한 환경뿐 아니라 강한 봄바람 또한 큰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는 봄철에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는 가운데 저기압이 다가올 경우 그 사이에서 기압 차가 커지면서 강한 바람이 자주 부는데, 이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를 빠르게 확산시켜 대형산불로 번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23년 4월, 충남 홍성군에서 피해 면적이 1,454ha에 달하는 대형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며칠간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며 고온 건조해진 바람과 맑은 날씨의 영향으로 충남권의 대기는 매우 건조했다. 여기에 초속 15m의 강풍이 불면서, 불씨가 강풍을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해 옮겨붙는 현상까지 나타나 피해가 컸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날 금산에서 발화된 불씨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약 7분 만에 대전으로 번졌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산불 진화를 어렵게 했다.

이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에는 산불의 이동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대형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조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기상청은 이처럼 산불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형산불 발생 시 산림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맞춤형 산불 진화용 기상정보를 제공하여 산불 진화를 돕고 있다. 산불 발생지역의 초단기·단기 예보 및 풍향·풍속·연직상승류의 바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산불 진화 헬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난류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산불 현장에 기상관측차량을 투입하여 실시간으로 온도, 풍향, 풍속, 습도 등의 기상 요소를 관측하여 산불 확산 경로를 예측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히 공유하여 효과적인 산불 진화를 위한 기상지원에 힘쓰고 있다.

산불은 기상 조건이라는 '환경'과 인간의 부주의로 만든 '불씨'가 만났을 때 발생한다. 우리는 '건조'와 '바람'이라는 기상 조건은 막을 수 없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한다면 불씨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건조 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표된 상황에서는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만큼 불씨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상청은 앞으로 건조와 강풍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기후 특성을 더욱 면밀히 분석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산불로 인해 파괴된 산림 생태계가 완벽히 복원되는 데는 최소 30년, 길게는 무려 1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사라진 숲을 다시 보기 위해서는 한 세대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셈이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모두가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 측우기에 담긴 데이터의 가치와 관측 정신

관측의 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때로는 거대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의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극한 기상이 일상화되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국가 재난 대응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기록적인 폭우가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비가 얼마나 내렸는가'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관측의 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현대 기상 업무의 신뢰성은 바로 이 정량적 데이터에서 나온다. 기상청이 실시간 강수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송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CBS)'가 대표적인 예이다. 기후위기로 기존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극단적인 폭우 사례가 빈발하면서 매우 강한 호우가 발생하면 기상청에서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50mm와 3시간 90mm가 동시 관측 또는 1시간 72mm 이상이라는 명확한 강수량 기준에 따라 발송된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 즉각 위험을 알리고 대피 시간 확보를 돕는 이 서비스는 정확한 강수량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놀랍게도 이러한 정량적 데이터의 중요성을 우리 선조들은 600년 전부터 꿰뚫어 오고 있었다. 1441년(세종 23년), 세종대왕과 문종의 주도로 발명된 측우기는 서양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서 발명된 세계 최초의 규격화된 강수량 관측기기이다. 측우기 발명 전에는 호미나 가래가 땅속에 스며든 깊이로 비의 양을 짐작하는 '우택(雨澤)'이라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이는 토양의 재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한계가 있었다. 측우기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일정한 규격의 원통형 그릇에 빗물을 담아 '주척(周尺)'이라는 표준 자로 깊이를 측정했다. 이는 현대 기상관측의 기본 원리와 동일하다.

측우기의 등장은 단순한 발명을 넘어, 전국 8도 감영에 관측망을 구축하고 보고 체계를 세움으로써 국가적 기상 관측 체계를 완성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당시 조선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8도 감영에 측우기를 설치해 정규 관측망을 구축하고, 정시에 관측한 데이터를 공식 문서로 중앙에 보고했다. 현재 유일하게 남은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와 관련된 기록이 '충청감영계록'에 상세하게 보존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비가 내린 시간과 빗물의 깊이를 분(分, 2mm) 단위까지 세밀하게 측정한 기록이 담겨 있어, 당시 데이터의 신뢰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토록 치밀하게 비의 양을 잰던 이유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농업이 근간이었던 시대에, 강수량 데이터는 풍흉을 예측하여 백성의 안위를 살피고 세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 경영의 핵심 도구였다. 즉, 600년 전 측우기는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살피기 위한 과학적 행정의 산물이었다.

과거의 측우기가 농민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데이터 행정'의 산물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위성, 레이더,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아우르는 3차원 입체 관측망이 현대판 측우기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오래전 빗물의 깊이를 재던 위민(爲民) 정신은, 오늘날 현대적 기상 기술로 계승되어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고 있다.

기상청은 측우기에 담긴 기상과학의 역사적 중요성을 보존하고 선조들의 지혜를 널리 알리고자, 국립기상박물관과 전국 6개 기상과학관에서 측우기를 전시하고 있다. 특히 국립충남기상과학관에는 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비의 정원'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체험을 통해 측우기의 과학적 원리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선조들의 지혜가 현대 기상과학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생생하게 이해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600년 전, 비의 양을 치열하게 기록했던 선조들의 관측 정신은 오늘날 첨단 기상기술로 계승되어 우리 사회를 지키는 든든한 기초가 되고 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늘의 관측이 내일의 보호'로 이어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들이하기 좋은 따스한 봄날, 가까운 기상박물관이나 기상과학관을 찾아 역사 속 측우기 데이터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며 우리 기상과학의 찬란한 자부심을 경험해 보시길 권한다.



기록된 데이터는  
우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된다

계절의 여왕 5월, 산천이 푸르러지는 이 시기에 기상청은 여름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다가올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지나온 하늘의 궤적을 꼼꼼히 되짚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상청 날씨누리과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통해 공개하는 관측데이터들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위험을 과학적으로 알리고 대비하도록 돕는 지침서로, 관측기록들은 내일의 안전을 좌우하는 이정표가 된다.

우리는 흔히 ‘역대급 폭우’, ‘역대급 폭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는데, 역대급이라는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정밀한 관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상관측 데이터를 살펴보면 기후위기가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의 기록들은 과거의 경험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1시간 최다강수량 기록을 보면, 1998년 8월 6일 인천 강화의 123.5mm와 1999년 9월 10일 충남 부여의 116mm 같은 과거 기록들 사이로 최근의 데이터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9월 7일 전북 군산에서는 152.2mm라는 엄청난 수치가 기록되었고, 7월 17일 충남 서산에서는 114.9mm의 물 폭탄이 쏟아져 극값 1위를 경신하였다. 불과 한 시간 만에 한 달 치 비가 쏟아지는 극한의 호우는 이제 예외적 현상이 아닌 우리가 대비해야 할 실존적 위협이 되었다.

우리나라 113년(1912~2024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의 강수 극한기후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1시간최다강수량 50mm 이상일수는 지난 113년간 매 10년당 +0.04일 증가로 증가 추세가 뚜렷하고 특히, 199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일 최다강수량도 지난 113년간 매 10년당 2.09mm 증가로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이러한 숫자는 우리가 알던 일상적인 여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담담하게 증언한다.

기억되지 않는 비극은 반복되지만, 기록된 데이터는 우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된다. 호우 순위와 강수 패턴 분석 자료는 방재 관계기관이 댐의 수위를 조절하고, 지자체가 하수관거의 용량을 설계하며, 소방대원들이 취약 지역의 대피로를 점검하는 데에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기록이 정교해질수록 우리 사회를 지키는 방패는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측기록이 국민 개개인에게 전달되어 실천적 지식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최근 극한 강수가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이번 예보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시민들의 자각이야말로 재난 대응의 시작점이다. 기상청이 어려운 행정 용어를 배제하고 인포그래픽과 쉬운 표현으로 관측기록을 공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기상청은 기상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위험기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호우의 위험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대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시간 강수량이 50mm 이상 이면서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이거나, 1시간 강수량이 72mm 이상일 경우 발송된다. 더불어 기상청은 최근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반복됨에 따라 올해, 기존 호우 긴급재난 문자보다 한 단계 높은 ‘재난성호우 긴급 재난문자’ 발송을 추진 중이다.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85mm 이상 이면서 15분 강수량이 25mm 이거나, 1시간 강수량이 100mm 이상일 경우 발송된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나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받으면, 그 즉시 안전한 고지대 또는 대피시설로 이동하고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 등에는 출입을 삼가야 한다.

하늘을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관측기록은 내일의 위험을 내다보고 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정확도 높은 기상관측을 수행하고, 관측기록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유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다가올 여름, 기상청은 촘촘한 관측망과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상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3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6.3.3.~10.31.

### 「우리지역 꽃가루 달력 서비스」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민의 알레르기·호흡기 질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우리지역 꽃가루 달력 서비스」를 월간 달력 형태로 제공한다. 꽃가루 달력은 대전지역 13개 수종의 꽃가루 관측값을 통계 처리하여 제작되었으며, 수종별 알레르기 유발 정도와 꽃가루가 많이 비산하는 시기, 예방수칙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지역민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생활기상정보의 활용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2026.3.19.~3.20.

### 서천 동백정 해양CCTV 전원차단기 이전 및 함체 교체

대전지방기상청은 서천 동백정 해양CCTV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원차단기를 이전하였다.

기존 집수정 내부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강우 시 습기와 토사 유입으로 반복 트립\*이 발생해 CCTV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상 전원분전함을 신설하고 차단기를 이전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해양 기상감시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립 : 누전차단기가 내려가는 현상)



2026.3.21.~3.23.

## 2026년 세계기상의날 기념 행사 지원

대전지방기상청은 2026년 세계기상의날 행사 현장에 기상관측차량이 현장 홍보 지원에 나섰다.

‘오늘을 관측하여, 내일을 보호한다’는 WMO 공식 표어와 함께 행사장의 현장관측자료를 실시간 표출하고 고층기상관측을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폭염 호우 등 위험기상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관측자료 활용성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기상정보 제공과 관측 공백 해소 역할을 강조해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홍보와 재난 현장에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3.23.

### 세계기상의 날 기념 국립충남기상과학관 특별 프로그램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3월 23일 세계기상의 날을 맞이하여 국립충남기상과학관에서 다양한 기상과학 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3월 21일 기상의 날 특별 강연으로 KBS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를 초청하여 '되돌릴 수 없는 미래'로 기후위기의 현실과 기상 이야기를 실감나는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들려주었으며, 국립과천과학관 이동형 체험물 특별 전시(3.23.~4.28.), 웹툰 공모전, 비의정원 특별존,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였다.



2026.3.24.

## AI시대 미래대응 전문가 초청 강연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AI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직원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연은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 AI 활용 사례를 통한 업무 적용 방법에 대해 기상청 내부 전문가인 수치예보기술과장님이 강의를 해주셨다.

AI 기반 업무혁신과 미래대응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대전청 전 직원이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2026.3.25.

##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운영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북극렬비도에 위치한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대전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대전KBS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전청은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의 운영성과를 소개하고 기지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며, 동시에 각 관계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토의를 통하여 장비 운영 시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6.3.26., 4.17.

##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교육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충남권 기후변화분석정보 사용자 매뉴얼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기상·기후자료를 활용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서비스를 소개하는 등 기상기후자료 활용법 교육을 통해 과학적 근거 기반한 지역별 기후학적 특성이 반영된 기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였다.

## 대전지방기상청 · 계룡산 벚꽃 개화정보

대전지방기상청은 계절의 빠르고 늦음의 지역적인 차이 등을 합리적으로 관측하고 통계 분석하여 기후 변화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벚꽃 개화 등의 **계절관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 벚나무 표준목



촬영일 : 2026년 3월 31일

계룡산 벚나무 표준목



촬영일 : 2026년 4월 3일

2026.3.27.~4.10.

### 대전(청) 벚꽃 개화 정보 제공

대전지방기상청은 봄철 나들이 지원을 위한 2026년 벚꽃 개화 정보를 제공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에 위치한 표준목을 기준으로 벚꽃의 발아부터 만발에 이르기까지의 실황을 매일 대전지방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올해 개화는 3월 29일, 만발은 3월 31일로 관측되었으며, 이는 작년보다 개화는 3일 빨랐고, 만발은 5일 빠르게 나타났다. 대전 시민들이 벚나무 개화정보를 활용하여 봄 나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2026.4.2.

###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참가

대전지방기상청은 식목일을 맞이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연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대전광역시에서 주최하는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가하였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장동문화공원에 매실나무 묘목을 식재하며 도심 속 녹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대전지방기상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6.4.9.

### 「대전지방기상청-TBN충남교통방송 업무협약(MOU)」체결

대전지방기상청은 tbn충남교통방송과 지역민의 기상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하여 4월 9일 tbn충남교통방송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상재해 안전 프로그램 개발·운영, 위험기상 신속한 정보 전달, 양 기관 인프라 활용 협력 등 기상과학 및 교통안전 이해 확산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2026.4.15.~4.28.

## 관측자료 공동활용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기후위기에 따른 국지적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측자료 공동활용을 강화하고자, 충남 관측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운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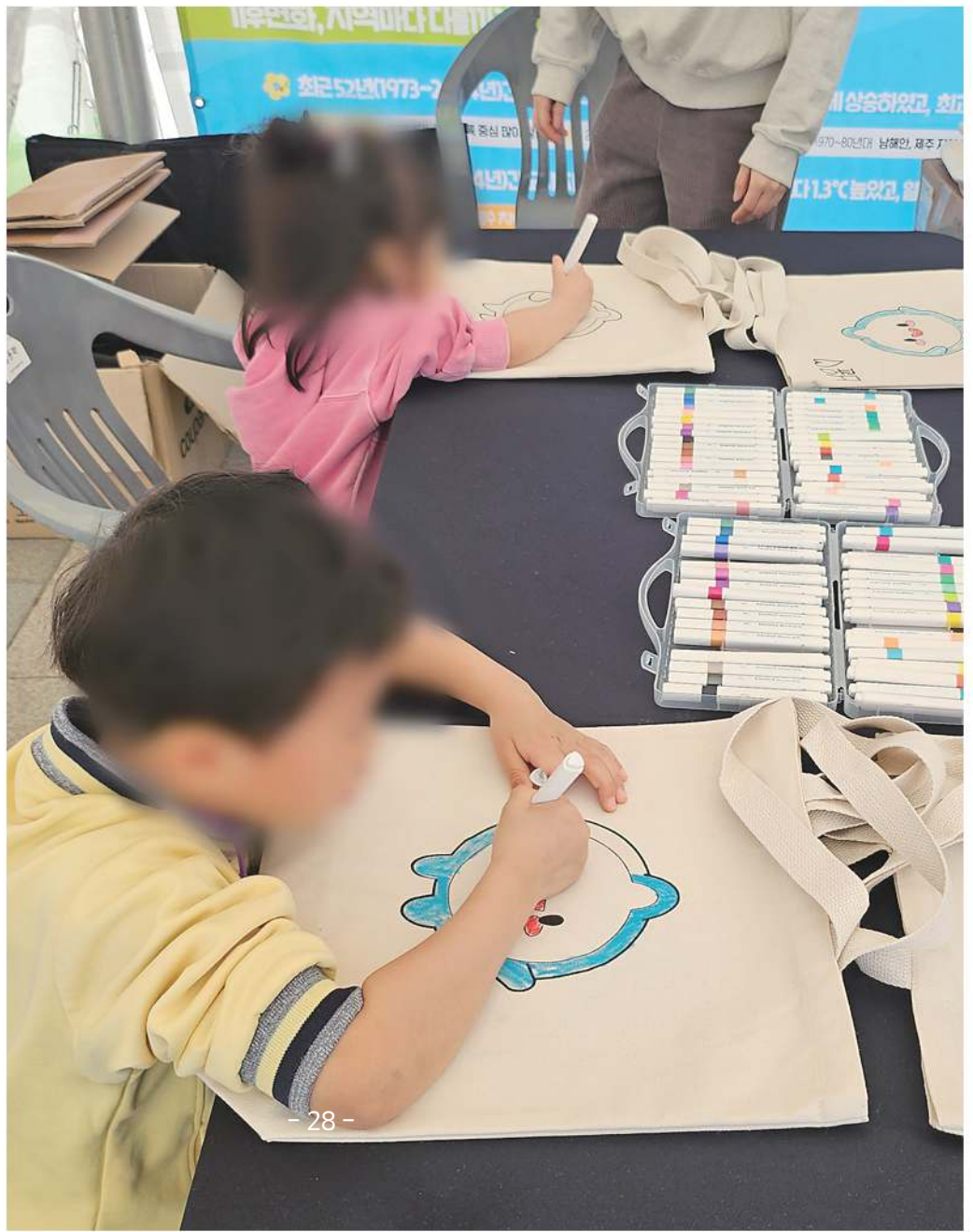
이번 현장설명회에서는 고품질 기상관측자료의 안정적 수집을 위한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기상관측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상전문기관 위탁 제도’를 홍보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번 현장설명회 운영으로 관계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와 지역 기상관측망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6.4.17.~4.25.

## 지역 축제 연계 「기후변화과학 체험부스」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축제인 「제55회 사이언스데이(4.17.~19.)」, 「대전시 지구·환경의 날(4.22.)」, 「제18회 기후변화주간 세종시 탄소중립 한마당(4.25.)」에 참가하여 기후변화과학 체험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진공압력장치를 이용한 기압실험 등 기상과학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탄소중립 실천 인식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약속 키링 만들기, 기상이 에코백 꾸미기 등 체험형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대전지방기상청은 미래세대의 기후변화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기여하였다.





2026.4.20.~4.22.

### 교육청 대상 지진정보 직접 연계 확대를 위한 현장 설명

대전지방기상청은 교육청 대상 지진정보 직접연계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전·세종·충남 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과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이번 설명에서는 지진정보 PC Client 설치 및 운영 방법, 지진 발생 시 정보 전파 체계 등을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신속한 지진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지진재난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하였다.



2026.4.22., 5.4.

### 폭염 영향예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대전지방기상청은 야외근로자 관리기관 대상으로 폭염 영향예보 전달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충청지방우정청을 4월 22일에, 대전광역시 8개 노인종합복지관과 협업하여 운영 중인 '한발어르신재해예방협의회'를 확대하기 위해 갈마노인복지관은 5월 4일에 방문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영향예보 및 기상정보 활용방법과 위험기상정보 전달체계를 공유하였고, 날씨알리미 활용 안내 등 영향예보 활용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야외근로자 및 지역 어르신의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6.4.29.

## 재난업무 담당자 기상정보 이해 및 활용법 기상교육

대전지방기상청은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재난업무 담당자 72명을 대상으로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활용 등 위험기상 대응 역량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방재기상플랫폼 활용 방법 및 레이더 영상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계기관 방재담당자들의 기상이해도를 증진시키고, 방재대응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4.29.~5.4.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실태 중앙합동점검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관할 지역 내 기상관측시설의 관리 상태와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도출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장 조치 및 개선을 요청했으며,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여름철 재난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2026.5.5.~5.27.

### 「기상기후과학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대전시민천문대 어린이날 행사」, 「동구 어린이날 큰잔치」에 참가하여 체험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탄소중립 실천행동다짐 키팅 만들기, 기상이 에코백 꾸미기 활동에 4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기후변화과학 이해 확산과 기후위기 인식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기상기후 체험교실(5.12,5.19.)」, 진로체험 「기상청 사람들(5.7.~5.27.)」과 같은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기상기후과학 학습의 장을 마련하였다. 수상가옥 만들기, 일기도 그리기, 태풍 경로 예측 게임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상기후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향상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 기상기후 꿈나무들의 진로 탐색에도 기여하였다.



2026.5.5.

## 국립충남기상과학관 「어린이날 기념 특별 프로그램」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기상과학 문화 확산 및 과학관 홍보 강화를 위하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체험형 행사를 5월 5일 개최하였다. 당일 행사로 관람은 무료로 운영되었으며, 내부 및 야외에 다양한 체험 및 즐길거리로 구성되었다. 과학관 메인 콘텐츠인 강수 체험장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강수 장면을 모아현장의 강수단계별 체험으로 관람을 하였으며, 평소 보기 힘들던 곤충 및 파충류 특별 전시 ·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야외에서는 에어바운스, 놀이기구와 함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를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2026.5.6.

## 「2026년 여름철 방재기상정책협의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5월 6일 방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여름철 위험기상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해 「2026년 여름철 방재기상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및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등에 대해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 신설되는 특보제도를 통해 국가 자연재난 대응을 강화하여 올 여름철 위험기상으로 인한 충남권 기상재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2026.5.7.

## 제1차 관측기술세미나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관측장비 장애 대응과 관측자료 품질관리 등 관측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관측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관측종합관리(MTMS) 활용법, Linux LAU 점검 방법에 대해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위험기상 대응 강화 및 고품질 기상관측자료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관측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26.5.12.~5.13.

## 「2026년 대전지방기상청 청렴·소통 워크숍」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남 여수에서 「2026년 대전지방기상청 청렴·소통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부서간 여름철 방재기상 정책을 공유·토의하고 소통을 위한 팀빌딩을 진행하였다. 또한 청렴 유적지 방문을 통해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다.

2026년도 상반기 대전지방기상청 청렴·소통

2026. 5. 12.(화) ~ 5. 13.(수)

대전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위장가상 대비 대안책 기상관측자료 운영 기준 연세

[ 2026. 5. 12.(화) 대전지방기상청 청렴·소통 ]

- 연평
  - 위장가상(위장) 운영기준은 대부분 자동관측장치의 원천자료 운영에서 기술(알고리즘)에 대한 단계적 개선 과정에서 기존 원천자료 운영체계의 변화
  - 위장가상(위장) 운영 기준은 2026년 상반기에 운영될 예정
  - 위장가상(위장) 운영 기준은 2026년 상반기에 운영될 예정
- 모두·대상·특별관리·요청·기준 및 절차
  - 관할지역 기상관측장비(위장) 운영기준은 위장가상(위장) 운영기준에





2026.5.11.

## 「2025년 대전·세종·충남 기상기후보고서」 발간 및 배포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2025년 대전·세종·충남 기상기후보고서」를 발간하고 충남권 기후·환경 관련 부서 총 38곳 및 대전청 누리집 게재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하였다. 연·계절별 기후특성(기상가뭄 포함) 및 이상기후 현황, 해양(외연도) 기후특성 분석을 담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지역민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가 확산되고 관계기관의 기후 리스크 관리 및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5.28.

## 2026년 「상반기 언론인 소통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언론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위험기상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대전·세종·충남 지역 언론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6년 여름철 달라지는 주요 기상정책과 여름철(6~8월) 기상전망 및 여름철 위험기상(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대전지방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위험기상으로부터 지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지속 노력할 것이다.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극값 및 계절관측

3

March

일평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3.31. 세종 3위 10.2°C, 홍성 4위 10.4°C

일최고기온 최저 극값(순위) 경신

3. 8. 홍성 4위 -6.1°C, 세종 4위 -5.2°C

하순 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3.31. 홍성 2위 10.4°C, 세종 2위 10.2°C, 부여 3위 11.1°C, 천안 5위 9.4°C

4

April

일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4. 4. 세종 2위 29.2mm

상순 10분최다 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4. 1. 천안 5위 5.4mm

상순 1시간 최다 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4. 1. 천안 5위 9.0mm

중순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4.19. 세종 1위 28.3°C, 홍성 1위 28.9°C, 서산 4위 26.7°C, 대전 4위 28.8°C  
보령 5위 26.3°C

5

May

일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5.20. 홍성 1위 89.8mm, 세종 1위 80.1mm, 대전 5위 74.0mm, 부여 5위 79.2mm

상순 일최대순간풍속 최고 극값(순위) 경신

5. 8. 세종 1위 13.9m/s, 천안 5위 14.4m/s, 부여 5위 12.7m/s

중순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5.16. 세종 2위 30.2°C, 대전 5위 31.1°C, 천안 5위 30.2°C, 홍성 5위 29.7°C

5.18. 금산 2위 31.6°C



중순 10분최다 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5.12. 세종 2위 7.2mm, 보령 4위 7.5mm, 홍성 4위 2.2mm

중순 1시간최다 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5.12. 세종 1위 13.8mm, 보령 5위 17.9mm, 홍성 5위 7.6mm

중순 일강수량최다 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5.20. 부여 1위 79.2mm, 홍성 1위 89.8mm, 세종 1위 80.1mm, 대전 2위 74.0mm  
금산 2위 66.2mm, 서산 3위 69.3mm, 보령 3위 62.4mm

일평균기온 극값(순위) 경신

5.26. 서산 2위 24.1℃, 보령 2위 24.6℃, 홍성 2위 23.9℃, 세종 3위 23.6℃

일최고기온 극값(순위) 경신

5.26. 보령 4위 30.6℃, 홍성 4위~5위 30.4℃, 세종 2~4위 30.2℃

동물계절

|        |                                  |
|--------|----------------------------------|
| 나비초견   | 3.17. (작년대비 6일 늦음, 평년대비 21일 빠름)  |
| 잠자리 초견 | 5. 6. (작년대비 17일 빠름, 평년대비 52일 빠름) |
| 빠꾸기 초견 | 5.15. (작년대비 3일 늦음, 평년대비 3일 빠름)   |

기후계절

|              |                                  |
|--------------|----------------------------------|
| 2025년 마지막 눈  | 3. 9. (작년대비 35일 빠름, 평년대비 9일 빠름)  |
| 2025년 마지막 관설 | 3.14. (작년대비 4일 빠름, 평년대비 10일 늦음)  |
| 2025년 마지막 얼음 | 3.21. (작년대비 11일 빠름, 평년대비 12일 빠름) |
| 2025년 마지막 서리 | 4. 8. (작년대비 5일 늦음, 평년대비 4일 늦음)   |

※ 동물계절 · 기후계절 관측은 대전지점 자료 제공  
 ※ 홍성 : 예비관측일인 2015. 11. 03.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17. 11. 01.)  
 ※ 세종 : 예비관측일인 2019. 04. 01.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20. 04. 01.)

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2026년도 식물계절관측(봄꽃) 현황

매화



발아

- 2월 22일
- 작년대비 7일 빠름
- 평년대비 19일 빠름



개화

- 3월 16일
- 작년대비 6일 빠름
- 평년대비 11일 빠름



만발

- 3월 19일
- 작년대비 5일 빠름
- 평년대비 11일 빠름

개나리



발아

- 3월 16일
- 작년대비 4일 빠름
- 평년대비 2일 빠름



개화

- 3월 24일
- 작년대비 같음
- 평년대비 2일 빠름



만발

- 3월 26일
- 작년대비 같음
- 평년대비 5일 빠름

진달래



발아

- 3월 16일
- 작년대비 1일 빠름
- 평년대비 3일 빠름



개화

- 3월 23일
- 작년대비 1일 빠름
- 평년대비 6일 빠름



만발

- 3월 25일
- 작년대비 2일 빠름
- 평년대비 8일 빠름

벚꽃 군락단지(계룡산)



개화전

- 3월 4일 촬영
- 맑음 / 11.1℃



개화

- 3월 31일 촬영
- 흐림 / 18.0℃
- 작년대비 3일 빠름



만발

- 4월 3일 촬영
- 구름조금 / 14.4℃
- 작년대비 4일 빠름

※ 벚꽃 군락단지 관측은 2017년부터 신탄진에서 계룡산으로 변경

아까시나무



발아

- 4월 7일
- 작년대비 3일 빠름
- 평년대비 7일 빠름



개화

- 4월 28일
- 작년대비 3일 빠름
- 평년대비 9일 빠름



만발

- 5월 2일
- 작년대비 4일 빠름
- 평년대비 10일 빠름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전자문서(PDF)로  
무료 발급 받으세요!

<http://minwon.kma.go.kr>



### 인터넷 간편 신청, 발급

기상특보와 지진관측을 포함하여 모든 기상현상증명을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합니다.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관측증명)

### 전자증명서(PDF) 다운로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하며,  
기존의 종이출력과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합니다.



### 디지털원패스(정부통합ID) 로그인

다양한 정부사이트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 ID를 적용하였습니다.

### 플러그인 설치없는 웹 환경

플러그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Active X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없는 민원 서식

증명서의 개인정보 표시 제한, 세로형 출력 등  
민원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 민원사무의 종류

### 기상청 전자민원 신청 순서

디지털원패스란,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ID입니다.

####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 2. 기상자료제공

학술·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 대전지방기상청관할 지상관측지점 현황 (2026. 5. 현재)

#### 1. ASOS(8소)

대전(133), 세종(239), 서산(129), 홍성(177), 천안(232), 보령(235), 부여(236), 금산(238)

#### 2. AWS(40소)

정림(378), 오월드(642), 세천(643), 장동(648), 세종고운(494), 세종금남(496), 세종연서(611) 세종전의(629), 북격렬비도(229), 송악(493), 호도(578), 대산(606), 근흥(607), 삼시도(609) 홍성죽도(610), 공주(612), 서천(614), 논산(615), 당진(616), 직산(617), 청양(618), 태안(627) 예산(628), 유구(632), 정안(633), 아산(634), 양화(635), 계룡(636), 신평(637), 연무(644) 서부(645), 춘장대(646), 대천항(657), 만리포(658), 계룡산(659), 안도(666), 옹도(667) 외연도(669), 정산(691), 원효봉(694)

※ 기상특보 발표구역은 해당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발표함(기상법 예보업무규정 제8조 제2호)





대전지방기상청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구성동 22)

대표전화 +82-42-363-3599

Copyright © 2015 DROM. All rights reserved.